**창0126 Note**

**◆이정표 : 썬다 싱, 그 발 앞에 엎디어 p34**

나의 아들아,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 형편은 내가 더 잘 안단다.

그래서 나는 각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나를 계시하여, 보인단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른 길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는 나를 계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처럼 육신의 모습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무서운 존재나 혹은 이상한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며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믿고 사모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연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본질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려면 그분과 동질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그분은 사람에게 이와같이 사랑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부여하셨던 것이다.

사람들이 가진 사랑의 요구가 만족되기 위하여 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육신의 형체를 취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나의 모든 자녀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나를 보고

또한 나와 교제하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Ω골0115.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며, 낱낱의 피조물의 맏이(프로토토코스: 먼저 태어남,처음 난,맏아들)니라.

골0209. 이는 그분 안에는 신(神)이심(신격)(데오테스:신성,신격)의 온갖 충만함이 신체적으로(쏘마티코스:신체적으로,육체적으로) 거함이라.

따라서 "나를 본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1409)"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아들이라고 불렸으나, 나는 영존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사0906.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짐이라. 그리고 제국(미스라:제국,정부)이 그의 어깨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 불가사의한 자(펠레:기적,불가사의한 일,경이,경이로운,경이롭게), 조언자(야아쯔:충고하다,권면하다,조언하다,숙고하다,결심하다,공포하다,결정하다,궁리해내다,의도하다,조언자,모사), 세력(힘)있는 하나님, 영속(永續)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수령(사르: 수령,장관,두목,대장,지배자,관리자,주인,통치자,고용주,청지기)"라고 불리우느니라.